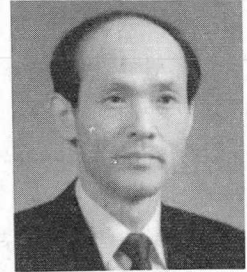


장기양돈불황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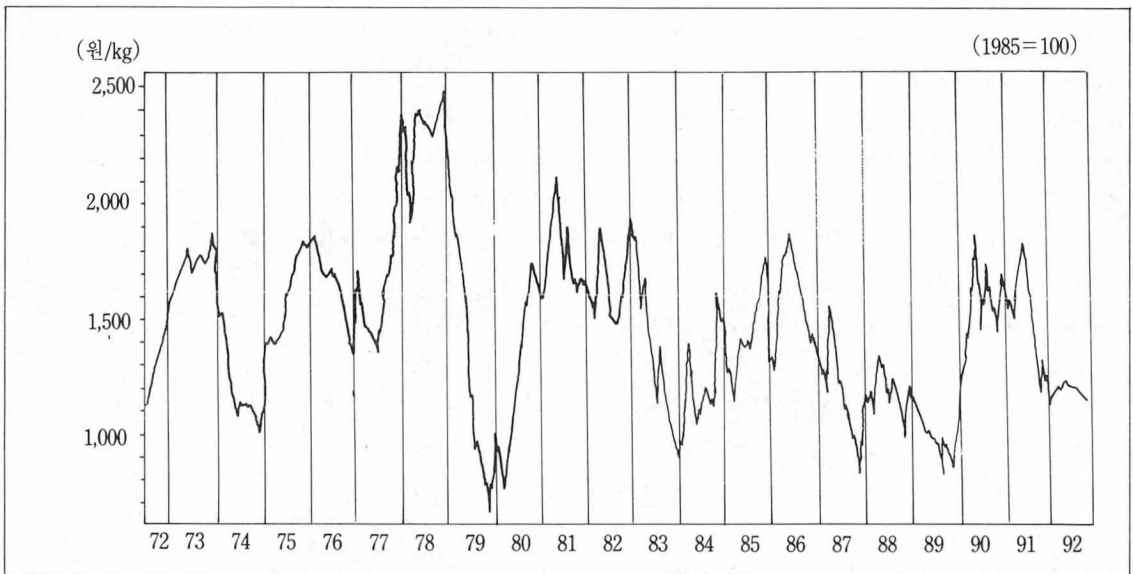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 또한번의 시련을

축산업계가 어느축종을 막론하고 겪어 온 시련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두려운 시련은 불황의 싸이클이라 하겠다. 이것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여서 소위 말하는 CORN HOG Cycle이란 것도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사료를 생산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며, 거의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CORN HOG Cycle의 직접 요인은 안된다 할지라도 미국의 옥수수 작황에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가 되겠다. 여기서 지나온 쓰라인 과거를 회상해 보게되는 <그림1>을 제시해 본다.

불황의 주기는소동물일수록 그 템포가 빠르며 번식



<그림1> 돼지 실질가격 주기변동

* 1980년 이후에는 시세변동이 4~5년의 주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주기속의 소주기 변동도 길어지고 있다. '92년은 그림에서 보듯이 내림세의 범주에 속한다.

물이 높을수록 또한 빠르다. 소는 1년에 1마리를 생산하므로 마음먹는 대로 증가시킬수가 없는 것이니 느리게 마련이다. 돼지의 불황년도는 <그림1>에서 보듯이 '74년, '79년, '83년, '87년, '89년으로서 그 주기가 '70년대는 5년정도 였으나 '80년대는 4년~2년 이었는데, 그렇게 놓고 따진다면 금년('92년)이 '89년에서 3년째 되는해 이므로 올때가 된 것이다.

● 두수 많아서 불황인가

했수로 헤아려서 불황주기가 올때라서 오는 불황이라면 그래도 올것이 왔구나 하겠으나 이번에 불어닥치는 불황은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뒤섞여진 불황이라고 보아져서 더욱 두렵고 과연 앞으로 이늪에서 어떻게 해쳐 나올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 들게 만든다.

<표1> 년도별 두수와 국민소비

구분	년말보유두수		국민1인당 연간 소비량		쇠 고 기	
	만두	100%	kg	100%	kg	100%
1988	480만	100%	10.1kg	100%	3.4	100%
1989	480	100	11.1	110	3.4	100
1990	450	94	11.9	118	4.1	121
1991	500	104	11.9	118	5.2	153
1992	560	117	잠정			

<표1>에서 보듯이 국민1인당 연간소비량은 '88년도 10.1kg에서 12kg도 오르지 못하고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쇠고기는 3년간 무려 150% 이상 소비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본다. 닭고기도 '88년 3.1kg에 비하여 '91년도 4.8kg으로서 155%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 식문화 패턴에 맞는 소비 전략적인 식품의 개발연구가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 '94년을 대비하자

물론 두수가 늘어났으니 생산조절을 하면서 공생할

“

이번에 불어닥치는 불황은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뒤섞여진 불황이라고 보아져서 더욱 두렵고 과연 앞으로 이늪에서 어떻게 해쳐 나올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 들게 만든다.

”

자조적 정신이 작용해서 배가 파산하기 전에 아깝지만 덜어낼 물건을 바다물에 던져 버려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다. 이렇게 해서 '92년의 풍랑을 간신히 모면해 나갔다 하자 '94년의 먼 바다를 보니 더욱 큰 파도가 밀려옴을 느낀다. '80년대 UR협상시「설마하니 냉장육이야 그 먼거리에서 들어올 수 있으랴」하고 '94년부터 들어올 것을 응락한바 되는데, 최근 미국 등 서구 제국들이 일본에 돼지고기 냉장육을 수출하는 물량이 <표2>에서 보듯이 '89년 9%에서 '92년 20%로 증가함을 보며, 이런 추세는 머지않아 냉장육으로 100% 제공될 것으로 보아진다. 얼렸던 고기와 신선육의 차이가 이만큼 그 맛에서 다른 것은 고기맛을 아는 선진국 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표2> 냉장육과 냉동육의 수입비율 변화(일본)

구분	'89년도		'91년도		'92. 6	
	수입량	비율(%)	수입량	비율(%)	수입량	비율(%)
냉동육	313,736	91	352,724	85	194,410	80
냉장육	31,330	9	60,661	15	50,116	20
계	345,066	100	413,385	100	244,526	100

'91년도 국내 돼지가격 조정 차원에서 수입된 냉동돈육이 당시 2.33\$/kg이었다 한다(축협제공). 이는 국

내 도착가격이므로 물론 관세포함 가격이다. <표3>에서 보듯이 정육업자들은 1근에 2,000원만 받아도 도매가의 60% 마진을 보게 되지 않겠는가. 국내산업을 보호하자, 국산품을 애호하자 등의 구호를 외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중국과 문호가 개방되고 국내 축산인들이 대거 방문하는 모습을 본다. 중국의 경제체제는 완전 국가통제체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을 뚫기 위하여는 어떠한 수단도 아주 쉽게 강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곳이 바로 이웃집에서 건너다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내 상인들이 돈벌수 있지만 양심상 못하겠다고 할 것인가.

<표3> 미국산 냉장육 국내 도착가

적 요	금 액		비 고
	kg	근당	
도 착 가	1,740		관세 20% 포함 냉동에 10% 추가 10% 계산
냉 장 비 용	174		
국내물류비	174		
계	2,088	1,252	

● 경기전망 장기불황예상

지난달 예측하기로는 10월중순에 2,000원선 하락했으나 이제 수매비축을 하게된 단계에 이르렀다. 10월 19일 현재 1,695원이니 두당 10만원미만(지육 58kg×1,695=98,310원)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가 있겠지만 수매비축이 능사는 아니다. 이것이 결국 국내시장에 다시 풀려나오게 될진데, 언발에 오줌누기 뿐이 안될 것이다.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생산조절을 하는 것과 대일수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출지원 얘기가 나온지는 벌써 몇 달이 되고 있으나 실행은 아직도 안되고 있다. 죽이던 밥이던 결단하는 면모가 아쉽다.

앞으로 시세는 수매비축의 정도에서 가격 양상이 조절될 것이므로 단언하기가 어려우나 지금상태에서 크게 호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수매비축 자금은 100억이라하니 10만두를 처리할 자금이나 보관창고가 미치지 않는 못할 것이다. **●**

양 돈 토 막 상 식

영국의 돼지 도체등급제

영국의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제는 도체중(car-cass weight)과 등지방두께(backfat thickness)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다. Grade 3은 표준이고 Grade 1과 Grade 2는 시세에 따라서 프리미엄(P)을 받게끔 되어있다. 또한 Grade 4는 표준미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받는다.

<표> 영국의 돼지고기 등급제와 프리미엄

도체중, kg	P ₂ 에서의 등지방두께, mm			
	Grade 1 +4P/kg	Grade 2 +2P/kg	Grade 3	Grade 4 -3P/kg
35~45	10	12	15	
45~55	12	15	18	
55~65	15	18	21	
65~75	18	21	24	
75~85	21	24	27	
85~95	24	27	30	
95~105	27	30	33	

<자료 : 제일제당 사료기술팀 제공>